

2008. 10. 6 제200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동향' 200회 발간에 부쳐

## 손 옹 비

뉴욕 통신원

(미국 텔라웨이대학 박사과정 공공정책 전공)



세계 여러 도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모든 시민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세계도시동향'의 발전을 더욱 기대합니다.

## 이 소 라

도쿄 통신원

(일본 도쿄대학 박사과정 도시공학 전공)



도쿄 통신원으로 활동한 지도 어언 2년 반, 처음엔 10건 넘게 스크랩을 해놓아도, 재삼 심사숙고 끝에 정작 원고로 번역하기로 채택하는 것은 2~3개뿐이었습니다. 'Is Tokyo Sustainable?'이라는 주제로 각 개국의 유학생들과 토론하던 어느 날, 그동안 스크랩하느라 읽었던 기사들이 걸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나 자신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김 고 운

런던 통신원

(영국 런던정경대 박사과정 지리환경 전공)



최근 부쩍 많아진 출장자들을 보면서 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구나 새삼 느낍니다.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높아진 관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이 앞섭니다. 통신원은 런던과 서울, 영국 여러 도시와 서울을 연결 짓는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다른 부족한 면도 많지만 내가 연결짓고자 하는 두 꼭지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자문할 때가 많습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맥락과 문화적인 특수성이라는 양념은 쏙 빼버린 채 뽀뽀한 요약문만 보내기보다는, 정책이 결정되고 효과를 발휘하는 배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행복한 고민에 답하려고 합니다.

## 양 도 식

런던 통신원

(영국도시연구소 UrbanPlasma 소장)



'세계도시동향'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은 지식을 확장하고 정보의 지평선을 열며 우리사회를 재조명하는 안목을 제시하여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의 경관을 그린 과정이었습니다.

## 심 재 란

뉴욕 통신원

(O'Neil Langan Architects 인테리어 디자이너)



뒤늦게 참여해 바쁜 회사생활 중에 시간을 쪼개서 해오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회가 거듭되어 200회나 되었다니 뿌듯한 마음도 드는군요.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마음이 어찌나 빠르게 느껴지던지... 바쁘다는 핑계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배움의 기회에서 얼마나 차단하며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번성하시고, 그 번성하시는 '세계도시동향'에 제가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 지 나

상하이 통신원

(복단대학교 박사과정 기업관리학 전공)



짧은 기간 활약했지만 상하이 통신원으로서 느낀 점은 실로 적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중국 사회체제와 문화에 익숙해진 탓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중국 정부의 정책 및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자료수집원인 신문매체 탐독을 통해 경제, 경영 등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가 아닌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다채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 또한 통신원 활동을 통한 보람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 각지의 모든 통신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 소 연

북경 통신원

(중국 인민대학교 박사과정 상법 전공)



북경시는 여타 도시들처럼 도시라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로서 갖는 특수성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세계 어느 도시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극심한 변동기를 겪어왔는데, 다양한 얼굴을 가진 북경시의 동향을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다만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보다 분석적 기사를 쓰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유 진 경

베를린 통신원

(베를린 공대 박사과정 도시계획 전공)



한국에서 미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독일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도시동향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원고를 쓰지만 그래도 주된 관심은 도시문화 정책에 있습니다. 제가 원고 준비를 위해 베를린이나 다른 시의 정책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문화도시 만들기가 이제는 도시의 주요 과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원고는 베를린시의 호호-레즈비언 축제 기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저는 베를린 시의 문화 정책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사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고, 문화정책에 응용 가능성도 없는 이 내용이 과연 채택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원고가 '세계도시동향'에 실렸을 때 저의 감회는 특별했습니다. 문화행사는 시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주고 도시의 문화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서로 이해하는 장을,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아주 창의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도 원고 쓰는 일이 즐겁고 보람을 느낍니다.

# 클릭, 클릭! 베스트 10

1.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학교 설립 추진 (조지아주 데칼 카운티) -75호-
2.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시판 (시모노세키) -26호-
3. 다양한 주택설계도면 무료 제공 (방콕) -112호-
4. '도크랜드 재개발 프로젝트', 2004년 최우수 도시설계상 수상 (멜버른) -110호-
5.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순위 발표 (영국) -114호-
6. 스마트 성장을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매사추세츠주) -111호-
7. 주민이 수립·추진한 지역계획안 시행결과 발표 (시애틀) -25호-
8.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으로 도시활성화 추진 (영국 애버딘) -93호-

9. 정부에서 인터넷 포털을 차단장치 전 가정에 무료 배급 (호주) -147호-  
※ 홈페이지(www.sdi.re.kr) '세계도시동향'에서 가장 많이 클릭한 연고입니다.
10. 저소득층을 위한 '녹색 커뮤니티' 조성 계획 (시애틀) -109호-

## '세계도시동향'의 최근 인기 태그

녹지공간 조성 | 공무원 수 감축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보행자 중심  
주민 참여 | 가로경관 조성 | 에너지 절감 | 생태마을 | 도시경쟁력 향상  
예산 절감 | 마을 만들기 | 차 없는 거리 | 옥상 녹화 | 문화의 숲  
밸리브 | 친환경 관광산업 | 음악축제 | 장애인프리 도시 |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경관 | 자전거 도로 | 장애인용 콜택시 | 태양열 | 환경구역  
박물관 | 노인 축제 | 하이브리드 | 좌석 없는 전철 | 혼잡통행료

# 숫자로 본 '세계도시동향'

- 1: 세계도시를 통해 세계를 듣고 미래를 읽는, 1등 간행물 지향
- 2: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2번 발행
- 12: 해외통신원 수는 12명  
(뉴욕, 로스앤젤레스, 리우데자네이루,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북경, 상하이 주재)
- 14: 도시의 제반 현상을 14개 분야로 나눠 동향 파악  
(문화, 디자인, 산업, 경제, 행정, 재정, 건강, 복지, 방재, 안전, 교통, 환경, 도시계획, 주택)
- 22: 현재까지 해외 주요 도시의 선진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소개한 '벤치마킹 사례'는 22건
- 250: 세계도시동향에 등장한 250여개 도시
- 3700: 3700여 건의 원고로 세계도시동향을 구성
- 5700: 현재까지 검토한 원고 수는 5700여 건

# 세계도시

2008. 10. 6 제200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로스앤젤레스市の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사업

### 문화·디자인

1. 관광 안내는 관광대사에게 부탁하세요 (파리)
2. '도시 사랑' 슬로건으로 치장된 전철역 (베를린)
3.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자... '뮤직 마라톤' 개최 (도쿄)

### 산업·경제

4. 수도국의 토지를 빌려 드립니다 (요코하마)
5. 증기기관차 재가동해 관광 장려 (브라질 상파울루市)
6. 지식기반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지원 (런던)
7.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드는 최소자본 완화 (상하이)

### 건강·복지

8.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공 (미국 일리노이州)
9. 인증된 디스코텍에서 소음공해로부터 안전하게 (베를린)
10. 병원에 무장애 시설 설치 강화 (북경)

## 목 차

### 행정·재정

11. 정부 청사에 시민 초대해 '열린 정부' 실현 (베를린)

### 도시환경

12. 진동 발전(發電)으로 가정 소비 전력의 40% 만들어낸다 (도쿄)
13.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녹지공간을 창의적으로 이용 (영국)
14. 에너지 절약 위해 개수공사 실시하면 고정자산세 감액 (요코하마)
15. 재활용을 제고 위해 '너지 경제학' 이론 적용 (런던)
16. 기존 건축물 대상 옥상녹화 지원 (도쿄)
17. '에코 포인트 모델 사업'에 참여할 가정과 기업 모집 (교토)
18.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생태 순환농업 추진 (북경)
19.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계획 (상하이)

### 도시교통

20. 휴대전화로 벨리브 자전거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파리)
21. 고속도로 2개 구간에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로스앤젤레스)
22. 교통체증 해결 위해 길거리 주차구역 없애 (브라질 상파울루市)
23.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를 위한 공공심사 (런던)

## [벤치마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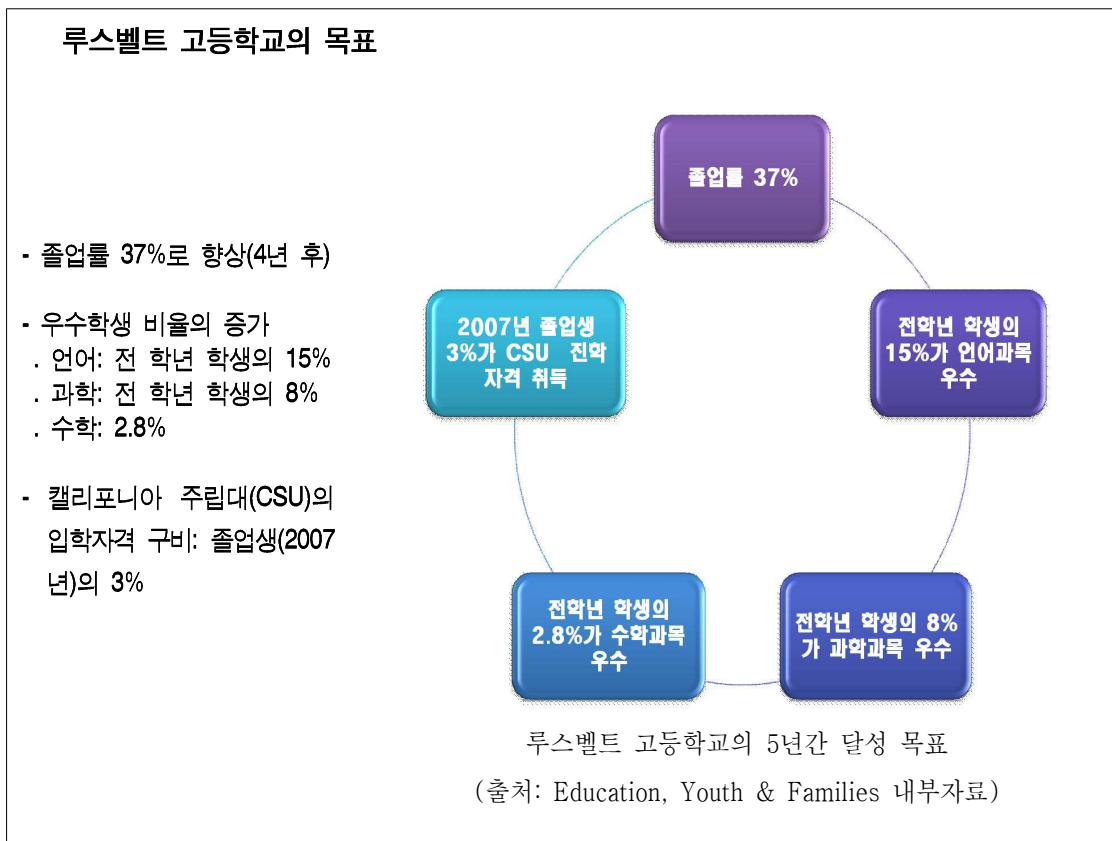
로스앤젤레스市の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사업

### <주요 내용>

- 로스앤젤레스市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LAUSD: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와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함.
  - 로스앤젤레스市는 약 5000만 달러(약 575억 5000만 원)의 기부금으로 민간 펀드를 조성해 1년여의 준비 끝에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함.
    - 市는 교육·청소년·가족부(Education, Youth & Families)를 두고 LAUSD 소속 학교와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市는 LAUSD의 혁신과, 대상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업을 전개함.
  - LAUSD와의 파트너십 사업은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낮은 학업 성취율, 높은 중도탈락률 등을 개선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함.
    -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 경영자를 지원함.
    - LAUSD 혁신과와 협력해 학교환경을 재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한 후 전역으로 확대해 적용함.
  - 로스앤젤레스市는 LAUSD 소속의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5년간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 중임. 파트너십 대상 학교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 예산 분야, 교장·교사·직원 모집 및 선출 등에서 자율성을 가짐.
    - 연방 및 주정부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한 LAUSD의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전문성 신장과 교육과정 발달 등의 영역에서 LAUSD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 의회(School Council)가 학교의 비전 설정, 연간 예산서 승인, 학교 리더 선출에 관해 파트너십 추진 기구에 추천할 수 있음.



- 파트너십 대상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위해 초기에 동의한 목표인 졸업률, 중도 탈락률, 캘리포니아 표준검사(CST; California Standard Test) 점수를 5년 안에 달성해야 함.
- 5년 뒤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학교는 다시 5년의 계약이 가능함.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종전처럼 일반 학교구의 관리를 받음.



### <해설 및 평가>

- 로스앤젤레스市는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학교교육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 학교교육에 대한 관여는 더 이상 학교를 학교구에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임.

- 로스앤젤레스市的 많은 학교가 65%에 육박하는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미국 내 다른 市보다 대학진학률 및 학업성취율이 낮음.
  - 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법률 제·개정, 펀드 조성, 추진기구와의 연계체계 마련, 1년여에 걸친 사전 준비, 다른 도시의 사례연구, 교육정책 분석가 및 학업성취 분석 전문가 투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로스앤젤레스市는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LAUSD,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함.
  - LAUSD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법적으로 로스앤젤레스市가 학교교육에 개입할 근거가 없음. 市는 법률 제·개정으로 LAUSD와 협력해 학교교육 개선 조치방안을 마련함.
- 학교교육 개선이 미래 로스앤젤레스市的 운명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점에서 기대가 큼.
  - 사업 효과를 가시적인 학업성취율, 진학률, 졸업률 등에 두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평가가 가능할 것임.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 2007년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어민 교사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입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각 학교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움.
- 지방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분리 운영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 힘든 조건임.

###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도 현재의 사업 방식과 별도로 각 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에 착수해야 함.
    - 서울시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함.
    - 철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함.
  - 각 학교에 대한 파트너십 사업은 저소득층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도 필요함.

### <벤치마킹 기대효과>

-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파트너십 사업 추진으로 학교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대학진학률 증가 등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확보할 수 있음.
  -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가능함.
  - 학생의 능력 향상에 따른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함.
  - 학교의 지역 학습센터의 역할이 가능함.
  -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공동체 구성에 기여함.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 1. 관광 안내는 관광대사에게 부탁하세요 (파리)

- 파리의 주요 관광지인 노트르담 성당, 파리 시청, 파리 플라쥬(Paris-Plages) 인공 해변 등에서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파리 관광대사들이 관광객을 맞이함.
  - 약 30명의 관광대사들이 각 관광 안내소에 배치돼 파리를 홍보하고 관광 안내를 담당함.
    - 이들은 모두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관광객이 식별하기 쉽도록 알파벳 ‘i’가 표기된 옷을 입음.
  - 파리 관광대사 활동은 파리가 의욕적으로 8년간 진행해 왔는데, 2007년에는 약 24만 2000명이 이들의 도움을 받았음.

(tourisme.paris.fr)

(www.parisinfo.com)

### 2. ‘도시 사랑’ 슬로건으로 치장된 전철역 (베를린)

- 베를린시는 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베를린을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하는 공모전 ‘Be Berlin’을 2008년 봄부터 실시했음.
  - 응모된 슬로건 중, 17세의 여학생이 제안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하고도 다양한 베를린’(Sei Einzigartig, Sei Vielfältig, Sei Berlin)이 우수작으로 뽑힘.
  - 선정되지 않은 슬로건도 모두 베를린에 대한 애정과 인상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시는 공모전에 응모된 슬로건을 모두 전시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여주기로 함.

- 응모된 총 1967개의 슬로건을 길이 120m의 빨강색 스티커에 인쇄해 2008년 9월 1일 베를린의 가장 큰 8개의 전철역 승강장 바닥에 부착함.
- 각 슬로건 아래에는 응모자의 이름을 적음.



(www.sei.berlin.de)

(www.tagesspiegel.de/berlin/be-Berlin;art270,2605297)

### 3.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자...‘뮤직 마라톤’ 개최 (도쿄)

- 도쿄都는, 세대 및 장르를 뛰어 넘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즐기자는 취지에서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자는 콘셉트의 ‘TOKYO 뮤직 마라톤’을 도쿄都 각지에서 개최하기로 함.
  -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음악 학습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음악 문화의 진흥을 위한 학습 환경의 정비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 ‘국제 음악의 날’(10월 1일)을 지정함.
  - 2008년 9월 하순부터 10월 초에 다양한 음악 콘서트가 열림.
    - 캐주얼 클래식 콘서트(9월 29일)

- 여성 오케스트라 클래식 콘서트(10월 2일)
- 도쿄의 음악사(音樂史)를 배울 수 있는 명곡 콘서트(10월 4일)
- 현악 앙상블 에콜로지 미니 콘서트(10월 4일)
- 우에노 공원 대부분수 클래식·뮤직 스크린 콘서트(10월 4일)
- 패밀리 라이브(10월 4일)
- 클래식·재즈 라이브 콘서트(10월 4~5일)
- 도쿄都 정원 미술관 개관 25주년 상송 콘서트(10월 5일)

([www.metro.tokyo.jp/INET/EVENT/2008/08/21i8l400.htm](http://www.metro.tokyo.jp/INET/EVENT/2008/08/21i8l400.htm))

## 산업 · 경제

### 4. 수도국의 토지를 빌려 드립니다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 수도국은 모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수도국 소유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기로 함. 아울러 수도국 토지를 활용한 광고물 기획안도 모집하고 있음.

- 토지 임대사업은 1년 동안(최장 2년 갱신) 자재 보관소나 공사장 사무소, 모텔 하우스 등을 짓는 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도국이 임차료를 받는 것임.

- 수도국 토지를 활용한 광고물 기획안을 ‘요코하마市 광고 사업 매칭 시스템’을 통해 모집하고 있음.

·市유지 광고 사업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함으로써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요코하마市的 자산 활용과 기업의 광고매체 이용 요구를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광고 기획 공모 시스템임.

·광고 게시는 1년이며(최장 3년 갱신), 현재 광고 효과가 높은 지역 3곳을 포함한 16개의 정수장, 펌프장 등이 대상임.

([www.city.yokohama.jp/me/suidou/press/press\\_20080731.html](http://www.city.yokohama.jp/me/suidou/press/press_20080731.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시 정수장은 총 6개소이며 현재는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가 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돼 있으며, 외관을 이중 울타리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어 상수도시설의 토지를 민간인에게 빌려주는 제도의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6개 정수장인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광암, 강북 아리수정수센터는 서울시민 약 1042만 명에게 맛있고 안전한 물 급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유해물질 살포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견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수도시설인 배수지는 최근에 상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하부의 배수지는 출입을 금하고 있음.
- 서울시 수도시설에 토지임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에 맞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시설 부지와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김영란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yrkim@sdi.re.kr)

## 5. 증기기관차 재가동해 관광 장려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 환경부는 1983년부터 운행이 중지된 증기기관차 재가동을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함. 철도문화재 보존기구는 증기기관차를 재가동해 테마여행을 콘셉트로 관광상품을 만들 계획임.
  - ‘Natura’ 화장품 회사에서 제일 먼저 그란지 상파울루 지역의 철로를 보수함.
    - 옛 철로 보수공사가 지역 관광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옛 철로 보수를 통해 5개의 테마 기차역을 모두 영국 고전풍으로 만들어 지역을 홍보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된 다른 지역의 표본이 되고자 함.

([www.estacoesferroviarias.com.br/p/perus-efpp.htm](http://www.estacoesferroviarias.com.br/p/perus-efpp.htm))

## 6. 지식기반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지원 (런던)

○ 런던개발청은 중소기업이 신상품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기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Knowledge Connect'를 운영함.

- 중소기업체가 산학연구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전문대학, 민간 전문가 등으로 '지식 이전 네트워크'를 구성해 혁신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등을 포함.

- 상품화 초기 테스트 비용, 제품 서비스 개발, 아이템 시험 등 기업 활동별로 최대 3000파운드(약 600만 원)를 지원하고, 50% 출자 조건으로 최대 1만 파운드(약 2000만 원)까지 연구개발 사업비를 보조함.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723](http://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723))

([www.knowledgeconnect.org.uk](http://www.knowledgeconnect.org.uk))

## 7.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드는 최소자본 완화 (상하이)

○ 2008년 7월 상하이시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설립 촉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는 19개 주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대표와 상하이시 경제무역 대표, 시 재정부 및 외환관리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기업 투자촉진 회의를 개최함.

- 규정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이 지역본부를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이 3000만 달러(약 34억 원) 이상에서 1000만 달러(약 116억 원) 이상으로 완화 조정됐고, 인재육성·자금관리·물류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외자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더욱 많은 기업의 지역본부가 상하이시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됨.

·현재까지 상하이시에 설립된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는 총 208개소이고, 외자 투자기구는 총 172개소로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293982.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293982.html))



## 건강 · 복지

### 8.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공 (미국 일리노이주)

○ 미국 일리노이주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제공하기로 함.

- 등·하교, 출·퇴근, 병원 이용 시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무임승차 대상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시카고교통국(CTA)의 적자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시카고교통국은 2009년 영업손실액 800만 달러(약 90억 원),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2600만 달러(약 290억 원), 군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50만 달러(약 5억 6000만 원), 주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따른 손실 3200만 달러(약 360억 원) 등 총 6650만 달러(약 746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봄.

([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1:842675424](http://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1:842675424))

### 9. 인증된 디스코텍에서 소음공해로부터 안전하게 (베를린)

○ 베를린시 건강복지청과 독일 국가보험회사인 기술자 보험회사는 베를린시에 있는 5개의 디스코텍에 ‘소음 조정 디스코텍’이라는 인증서를 수여함.

- 이 디스코텍은 손님에게 소음의 강도를 알려주고 너무 시끄러운 음악으로부터 손님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좋은 디스코텍으로 인증됨.

- 현재 청소년층에서 청각장애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기술자 보험회사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15~30세의 청각장애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이어폰으로 너무 크게 음악을 계속 듣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디스코텍에 대한 베를린市的 인증은 젊은 층이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임.

- 인증서는 모든 디스코텍 운영업소가 베를린 건강복지청에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서 수여 기준은 자격 있는 디제이 고용, 디스코텍 내부의 소음강도 실시간 표기, 99dB을 넘지 않는 음악 제공, 95dB 이상의 소음에서는 손님에게 귀마개 제공 등임.

([www.lageso.berlin.de](http://www.lageso.berlin.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8/20/10726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8/20/107264/index.html))

## 10. 병원에 무장애 시설 설치 강화 (북경)

○ 북경市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약자에게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건물, 도로, 거주지 등에 무장애 시설을 건설해 왔음. 특히 병원에서의 무장애 시설 개선 작업은 2008년 북경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비해 가속화했음.

- 북경市의 큰 병원은 1950~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대다수로, 병원 시설이 매우 낙후돼 개조가 어려운 실태임.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북경市 소속 병원에 무장애 시설 건설 및 개조에 투자를 강화해, 약 50개의 응급실 및 병실에 무장애 시설을 완성함.
- 2007년 이후 市는 약 1200만 위안(약 20억 원)을 투자해 올림픽 지정 병원에 무장애 시설을 위한 전면적인 건설 및 개조작업을 함.
- 현재 지정된 병원은 기본적인 무장애 시설화를 실현해 장애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음.

([zhengwu.beijing.gov.cn/gzdt/bmdt/t991179.htm](http://zhengwu.beijing.gov.cn/gzdt/bmdt/t991179.htm))

### 11. 정부 청사에 시민 초대해 ‘열린 정부’ 실현 (베를린)

○ 베를린市에 있는 독일 연방정부의 각 부서 건물이 2008년 8월 23~24일 시민에게 오픈됐음.

- 연방수상 관저 앞에는 시민들이 2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

·이번 행사의 방문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함.

- 정부의 각 부서는 시민을 맞아 공무 소개, 건물 내부 안내, 부서 공무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 기념품 배포 등의 행사를 진행함.

·수상 관저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그동안 국가 교류 시 독일 정부가 받은 선물, 즉 1996년 남아프리카 대통령 만델라가 당시의 독일 수상에게 선물한 장기놀이판, 미국 대통령 부시가 메르켈 수상에게 준 CD와 DVD 전집 등이 처음 전시돼 시민의 주목을 끌었음.

- 연방정부의 각 부서 건물은 베를린市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행사 기간 중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함.

-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곳은 수상 관저와 국방부 단 두 곳이며, 그 외 부서 건물 방문에는 신분증 없이 자유롭게 건물을 방문할 수 있었음.

([de.news.yahoo.com/ddp/20080822/tde-einladung-zum-staatsbesuch-75240f8.html](http://de.news.yahoo.com/ddp/20080822/tde-einladung-zum-staatsbesuch-75240f8.html))

#### 한줄 뉴스

<상하이>

- 중국 내 최고층 건물인 101층(높이 492m)짜리 국제금융센터 건설

- 상가 판매사원의 기본 행동규범, 응대 예절, 서비스 용어 등 상업 서비스 예절 규범 발표

## 도시 환경

### 12. 진동 발전(發電)으로 가정 소비 전력의 40% 만들어낸다 (도쿄)

- 2008년 1월, 도쿄역 한 개찰구에서 개찰기를 통과하는 승객의 발걸음이 만드는 진동으로 발전(發電)해, 개찰기 1대를 5시간 30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 에너지를 생산함.
  - 진동 발전 기술은 전기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스피커의 원리)을 역이용한 음력 발전의 원리임.
    - 다른 발전 시스템과는 달리 진동 발전에는 천연 자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진동 발전 장치는 반영구적임.
    - 시스템 1개당 가격이 10여 엔(약 100여 원)이라 실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여름 전일본건설기술협회로부터 ‘전건상’(全建賞, 토목 기술의 뛰어난 공적을 올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진동 발전 프로젝트-ECO 일루미네이션 다리’가 2007년 12월 설치됐음. 이는 진동 발전의 실용화를 입증하는 사례임.
    - 다리에서 항상 발생하는 흔들림(진동 에너지)을 진동 발전 장치로 에너지 화해 조명을 점등함.
    - 2008년 12월까지 100%의 진동 에너지로 다리의 조명을 켤 것을 계획함.
  - 한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진동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실용화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하고 있음.
    - 고속도로 전체 길이 295km 구간을 진동 발전으로 이용할 경우, 통행량 115만 대의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발전량은 약 500만kW임. 이는 도쿄都 23구의 일반 가정 소비전력의 40%를 조달할 수 있는 양임.

- 진동 발전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의 전력 공급 없이도 발전이 가능해 비상 재해 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대책으로 기대됨.



ECO 일루미네이션으로 유명한 고시키차쿠라 대교



도쿄역에서의 진동발전(振動發電) 실험

([www.shutoko-lab.jp/project1](http://www.shutoko-lab.jp/project1))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역에서 실시한 진동발전 실험은,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원 빈국인 일본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부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음.
- 도쿄도가 시도한, 지역의 기후와 지형 특성을 고려한 파력 발전이나 지하철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등은 자원이 빈약한 서울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서울시도 도쿄도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지하철이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도쿄역의 진동 에너지처럼, 기존 교통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강의 하천수 등 서울시의 기후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과 역량 강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김경철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gckim@sdi.re.kr)

### 한줄 뉴스

#### <런던>

- 시민의 건강 개선과 지속가능한 식습관 장려를 위해 식품위원회 위원장에 유기농장 대표 임명
- 소방방재청, 휴가철 빈집 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전략' 발표

### 13.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녹지공간을 창의적으로 이용 (영국)

- 영국 도시건축환경위원회(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녹지공간을 창의적으로 이용하도록 요청함.
  - CABE는 여러 사례연구를 통해 녹지공간이 어떻게 주기적인 홍수와 물 부족 그리고 온난한 기후를 완화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보여줌.
    - 여름에 빗물을 저장해 나무에 공급하고, 녹지 유지를 통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한 예임.
    - 런던 남부지역에 터널로 덮혀있던 큐위기(Quaggy) 강을 지상화하고, 우수기에 빗물이 수변으로 흐르게 해 지역의 녹지를 형성한 예를 소개함.
  -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원래 자연의 양상으로 바꿔 주는 것이 필요함.
  - 2007년 영국은 홍수로 인해 약 72조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녹지공간 조성이나 홍수를 예방하는 숲으로 적절히 디자인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공간 개선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42623](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42623))

#### >>> 전문가 검토의견

- 영국 CABE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는 기후변화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임.
  - 범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기술 개발과 활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숲 자원의 보존 및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탄소 중립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2009년 5년 'C40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음.
- 2008년 7월 말에는 생명의 숲을 포함한 12개 숲 관련 시민단체가 '기후변화 그린 네트워크'를 발족했고, 도시 숲 조성 및 관리 공동 운영,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결의했음.
-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측면의 노력뿐 아니라, 도시 숲 조성, 하천변 하반림 조성, 인공지반 녹화 등과 같은 녹화운동에 대한 공공 투자가 크게 있어야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14. 에너지 절약 위해 개수공사 실시하면 고정자산세 감액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건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세계 개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 실시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 감액' 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 2008년 4월 1일~2010년 3월 31일에 시행되는 열손실 방지 개수 공사(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가 완료되면 3개월 이내 신청분에 대해 차년도 분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1/3을 감액하는 것임.
  - 소유주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축 및 임대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 공사 금액은 30만 엔(약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공사 시 단열창 설치는 필수며, 마루·천정·벽의 단열 공사도 포함됨.
  - 현행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감액 범위는 연면적 120㎡까지임.

(www.city.yokohama.jp/me/gyousei/citytax/shizei/syouene.html)

## 15. 재활용률 제고 위해 ‘너지 경제학’ 이론 적용 (런던)

- 런던市の 바넷(Barnet) 자치구는 쓰레기 처리 문제, 재활용률 제고, 이산화탄소 저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지 경제학’(Nudge Economics)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기로 함.
  - 이 이론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내 재활용에 적극 참여한 사람에게 경제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준다는 것임.
    - 이 이론은 미국의 경제학자에 의해 공공의 건강과 부 그리고 행복을 향상하기 위한 이론으로 정립됐음.
  - 바넷 자치구는 영국 정부의 ‘커뮤니티 지방정부 부서’(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10만 파운드(약 2억 원)를 지원받아 너지 경제학 정책을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41134](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41134))

## 16. 기존 건축물 대상 옥상녹화 지원 (도쿄)

- 도쿄都는 녹지 조성과 열섬현상 대책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새로운 옥상녹화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옥상 및 지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옥상녹화를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
  - 지원을 받으려면 옥상녹화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수목·잔디·다년생 식물 등을 식재한 후 3년간 공개, 다시 3년간은 공개 상황과 유지관리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지원 경비는 옥상녹화에 관련된 공사비며, 경비의 50%를 보조함.
    - 1건 당 지원 상한액은 1000만 엔(약 1억 원)으로 2008년 지원 총액인 2000만 엔(약 2억 원) 한도에서 지원됨.

([www.metro.tokyo.jp/INET/20080800.htm](http://www.metro.tokyo.jp/INET/20080800.htm))



## 17. '에코 포인트 모델 사업'에 참여할 가정과 기업 모집 (교토)

- 교토府는 2008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에코 포인트 모델 사업'에 참여할 가정 및 협력 기업을 모집하고 있음.
- 에코 포인트 모델 사업은, 가정에서 전기와 가스를 절약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을 환경 가치(카본 크레딧)로 환산해 기업이 구입하고, 기업에서 받은 기금을 쇼핑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 발행하는 제도임.
  - 가정과 기업이 연계해 교토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정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 참가 가정(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2000세대)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가정으로 나뉘어 모집 중임.
  -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3.4kW 기준으로 1만 7000포인트, 태양열 설비에 대해서는 집열 면적 6㎡ 기준으로 1만 2000포인트를 부여함. 1포인트는 1엔(약 10원)에 상당하며, 한도는 5만 포인트임.
- 기업 부문에서는 1구좌 당 650엔(약 6500원)에 해당하는 카본 크레딧을 구입하게 되며, 최저 구입 단위는 100구좌 이상임.
  - 기업에서 모금된 카본 크레딧을 이용해 쇼핑할 수 있는 점포도 모집하고 있음. 점포는 크레딧 카드사와 연계해 쇼핑 금액 또는 일부를 전표로 처리하도록 함.

([www.pref.kyoto.jp/news/recruitment/2008/8/1218186120011.html](http://www.pref.kyoto.jp/news/recruitment/2008/8/1218186120011.html))

## 18.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생태 순환농업 추진 (북경)

- 북경市는 생태순환농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도시형 현대 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더칭위안 농업과학기술원은 생태적 재배, 친환경 식품 가공, 깨끗한 에너지와 유기농 비료 이용, 유기농 재배를 통해 매년 5억 개의 달걀 생산, 닭 200만 마리 사육, 18만 톤 유기농 비료를 생산함.
- 이 과정에서 유기 폐기물 및 오염물을 하나도 배출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8만 4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함.
- 더칭위안 농업과학기술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수립하고 순환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조함.
- 표준화한 생산 브랜드를 만들고 농업의 산업화 발전이라는 새 모델을 탐색해 순환농업 발전을 역점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

(zhengwu.beijing.gov.cn/gzdt/bmdt/t991438.htm)

## 19.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계획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 7월 발표한 ‘푸동 신도시 개발지역 녹화사업 계획’에 따라 생태습지 공원이 있는 지역 일대에 160만㎡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함.
- 물이 풍부하고 습지가 많아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적합한 이 지역은, 녹화사업을 통해 자연림으로 조성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함.
- 현재 이 지역에는 백로와 거위, 독수리 등 야생동물과 200여 종의 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음.
- 습지공원의 북쪽 일부를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 민간인에게 개방할 계획임.
- 녹화사업관리국은 이 지역에 자연림을 추가로 조성해 야생조류와 식물의 생장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함.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9/01/content\_14270789.htm)

## 도 시 교 통

### 20. 휴대전화로 벨리브 자전거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파리)

○ 파리市的 자전거 대여 서비스 ‘벨리브’가 한층 더 진보함. 어느 정류장에 자전거 여유분이 있는지, 목적지 근처 어느 정류장에 빌린 자전거를 비치할 여유 공간이 있는지 등을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핸드폰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함.

·30130이라는 번호에 ‘velib’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뜬. 그 다음 ‘les stations’라는 하위 메뉴에서 우편번호나 도시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정류장과 자전거 비치 여유 공간 여부, 보유 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함.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며, 인터넷 사이트(galsn1.velib.paris.fr)로 접속해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벨리브 정기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정류장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15분을 추가해 주는 보너스 제도도 시행 중임.

([www.velib.paris.fr/trouver\\_une\\_station](http://www.velib.paris.fr/trouver_une_station))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57182&portlet\\_id=826](http://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57182&portlet_id=826))

#### >>> 전문가 검토의견

- 현 파리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비결은, 파리를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임.

·버스 노선 폭을 확대하고 트램을 설치해, 좁고 복잡한 파리 도로에서 승용차를 밀어냈음.

·시민이 공공교통 수단 이외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체계를 갖춰 많은 시민에게 지지를 받았음.

- 특히 벨리브 자전거 서비스는, 초기 단순히 대여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예약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능선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전기동력 장치를 장착한 벨리브를 머지 않아 서비스할 계획임.
- 서울시의 경우 지형적인 조건과 도시 규모로 인해 서울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환경 도시, 자전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 폭을 과감히 축소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경사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전기나 자연동력 자전거 개발에 투자하고, 시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확대해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쉽게 무공해·건강증진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터넷, 모바일 폰, 다산콜 등을 활용해 공공 대여 자전거 센터 위치, 대여 자전거 수량, 목적지 길 안내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 21. 고속도로 2개 구간에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로스앤젤레스)

○ 2008년 8월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로스앤젤레스市에서 통행량이 많은 10번과 110번 프리웨이의 카풀 구간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市 도시교통국은 2억 1060만 달러(약 2조 3000억원)의 주정부 보조금을 혼잡통행료 도로로 바꾸는 데 쓸 예정임.
- 통행료는 교통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 저소득층에게는 통행료를 낮게 부과할지 논의 중임.
-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이번 프로젝트에 시범기간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밖에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www.sacbee.com/114/story/1198859.html)

## 22. 교통체증 해결 위해 길거리 주차구역 없애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市 중심지인 자르징스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 주차가능 지역을 없앨 계획임.
  - 이 계획이 시행되면 15개 도로에 있는 500대 길거리 주차장과 택시 정류장이 사라지게 됨.
    - 거리주차장의 1902대 주차장 중 636개의 주차장이 사라지고, 대신 123개의 주차장이 다른 장소에 조성됨.
    - 市 교통국에 따르면, 길거리 주차장을 없애면 교통체증이 30% 해소됨.
  - 앞으로 길거리에 주차하면 견인 처리되며, 15일 후에 견인요금 청구서를 발부함.
    - 견인 요금은 53.20헤알(약 2만 5000원)~127.69헤알(약 6만 5000원)임.
  - 2007년 6월 시의회에서 시내 중심가의 주차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교통문제 해결보다는 주차공간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시장의 반대로 최종인준을 받지 못했음.

([www.estadao.com.br/geral/not\\_ger213754,0.htm](http://www.estadao.com.br/geral/not_ger213754,0.htm))

### 한줄 뉴스

- 샌프란시스코市, 도로 막고 시민에게 운동 공간 제공하는 'Sunday Street' 프로그램 실시
- 리우데자네이루市, 신체장애인 관광객 위해 관광 및 숙박 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 베를린市, 2008년 8월 29일~9월 3일 국제 전자·통신기기 박람회(IFA) 개최
- 북경市, 2008년 10월 27일~29일 '국제 관련 박람회' 개최

## 23.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를 위한 공공심사 (런던)

- 런던市에서 시행되는 혼잡통행료 지역을 런던 도심의 서부지역으로 확장하는  
안에 대한 공공심사가 2008년 9월 1일부터 5주 동안 실시됨. 이 기간 동안 혼  
잡통행료 지역의 확장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런던시장은 확장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주민, 소매상,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표명함.
  - 새로 당선된 시장은 이전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가 가져올 결  
과를 간과한 것 같으며 확대 이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 혼잡통행료를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 하루 중 정오를 전후로 혼잡통행료  
를 받지 않는 방안, 혼잡통행료 지역의 거주민에게는 100% 면제 혜택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616](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616))